日韓両国の友好を目指して

新潟市国際交流員 洪 蔡利 (ホン・チェリ)

私は2016年4月から新潟市役所の国際課で韓国から の国際交流員として働いています。出身はソウルから少 し南に位置する京畿道安養市(キョンギド アニャンシ) で、大学で日本語を専攻しました。大学2年生の時に、 1年間長野県での交換留学経験を通じて異文化交流に興 味を持つようになり、大学を卒業後、国際交流員を志望 しました。

新潟市は人口約80万人の政令指定都市であり、地方 都市の中で規模が大きく、2017年には海外の自治体と 創意工夫に富んだ取組みをしている団体を評価する「自 治体国際交流表彰 | を受賞するほど、国際交流に積極的 に力を注いでいる都市です。

私は新潟市役所国際課で交流協定都市である韓国の蔚 山(ウルサン)市との連絡業務や通訳など、交流が円滑 に行われるように補助する業務をしています。そして週 2 日は新潟市国際交流協会に勤務して市内にいる韓国人 を支援し、市民に韓国を紹介するさまざまなイベントを 開催しています。他の地域の国際交流員とは違って、2 力所で仕事をすることでその分多様な業務を担当してい ることが特徴だと言えます。

新潟市役所国際課での業務

新潟市と蔚山市は 2016 年に交流協定締結 10 周年を 迎え、両市で記念式典が開催されて市長をはじめとする 代表団と文化団が相互訪問しました。蔚山市の文化団と して伝統舞踊団が新潟市で記念公演を行った時、私は新 潟市の舞台関係者と蔚山市の伝統舞踊団の間のコミュニ ケーションを手伝いました。公演時間はわずか 40 分で したが、数日間にわたり照明や音響の微妙な調節、動線、 カーテンの高さなど、細かいこと一つひとつについて話 し合いながら公演を準備する姿から、お互いに言葉は通

じなくても完璧な舞台を披露して新潟市民に韓国の伝統 文化を知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気持ちは同じだと感じま した。公演が終わって観客が熱い歓声と拍手を送るとこ ろでは、とても感動し、韓国人として誇りに思いました。 このような機会が新潟市民の方々にとって、少しでも韓 国に対して関心を持つきっかけになるように仕事に励ん でいます。

ほかにも、新潟市には「ウルサン友好の会」、蔚山市に は「新潟を愛する会」という市民の会があり、近年では お互いの都市を訪問し合っています。新潟市と蔚山市の 関係が格別に深いのは、おそらく業務的な交流だけでな く一般市民の交流が活発に行われているからだと思いま す。別れる際、名残惜しくて手をつなぎ合って涙を流す 場面を見るたびに、言葉の壁があっても相手を思う気持 ちさえあれば、心がつながることを切実に感じています。



ウルサン友好の会が蔚山市に訪問した時の写真

新潟市国際交流協会での業務

新潟市国際交流協会の業務では、国際課の業務より市 民と触れ合う機会がさらに多いです。



おしゃべりサロンで市民の方と韓国の最新流行について話し 合っている場面

例えば、5人の新潟市国際交流員が順番に行う「お しゃべりサロン」というイベントは、自分でテーマを決 め、自国について市民と話をする文化講座イベントです。 文化講座といっても堅い内容を一人で一方的に喋るので はなく、お互いに自由に質問をし合います。市民と非常 に近い距離で韓国の文化を伝えることができ、また市民 からも知らなかった日本の文化を知ることができるの で、私自身も勉強になり、とても有益な時間です。

また、毎年5月末、野外活動をしやすい時期に開催す るアウトドア・フェスティバル (Outdoor Festival) は、 企画から広報、開催まで5人の新潟市の国際交流員が力 を合わせて行うスポーツイベントで、国際交流員の個性 が最も生かせる業務です。国籍を問わず老若男女が参加 し、野外でスポーツを楽しみながらさまざまな人と交流 するというアクティブなイベントで、スポーツを通して 異文化を感じてもらうように、普段接しにくい他の国の スポーツや交流ゲームを行っています。私は韓国のペア



アウトドア・フェスティバルでドッジボールを楽しんでいる 参加者たち

ドッジボールを担当し、韓国に変わったドッジボールが あることを紹介し、楽しんでいただきました。私は実は スポーツが苦手ですが、スポーツに自信がない人や恥ず かしがり屋の子どもにも気楽に参加してもらうように、 スポーツが苦手ながらも自ら積極的に参加することを心 がけています。

新潟市国際交流員5人の絆

新潟市には韓国人である私を含めて、アメリカ、中国、 フランス、ロシアから来た5人の国際交流員がいます。 私は国際交流員になるまで新潟に来たことがありません でした。また、大学を卒業して初めての職場で、留学し たときの1年を除き、今まで両親と離れて暮らしたこと がなかったので、国際交流員合格通知を受けた時には、 喜び半分心配半分でした。でも職場に私のほかにも4人 の外国人の同僚がいるということで安心できました。も ちろんたまには価値観の違いで意見が合わない時もあり ますが、日本という他国で外国人という共通点を持って お互いを理解し、仕事を助け合う仲間でありながら、と きには親友としても大切な縁を築いています。これから 時間が経って、それぞれ自分の道に進み、長い時間会え なくなったとしても、人生の中で最も輝くこの時期を一 緒に過ごした記憶を思い浮かべるだけで心が温かくなる と思います。

日本と韓国はまだ解決すべき課題が多いですが、国際 交流員として1年半働いて気付いたのは、そういう国家 間の政治問題や言葉の壁は、個人の間では少しも関係が ないということです。私は今後も日本と韓国の懸け橋と して交流業務を担い、私の努力が両国の関係改善に少し でも役に立てるように頑張っていきたいです。



洪 蔡利

京畿道安養市出身。2016年4 月から新潟市の国際交流員とし て勤務を始め、現在2年目。大 学で日本語を専攻。

FTTFR

한일 양국의 우호를 위하여

니가타시국제교류워 홋채리

저는 2016 년 4월부터 니가타시청 국제과에서 한국인 국제교류 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 출신으로, 대학교에 서 일본어를 전공하였습니다. 저는 1년간 나가노현에서의 교화유 학 경험을 통해, 이문화 교류에 흥미를 느껴 대학교 졸업 후 국제교 류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니가타시는 인구 약 80 만 명의 정령지정도시이며, 지방도시 중 에서는 제법 큰 규모의 도시로, 2017 년에는 해외 자치체와 창의적 인 활동을 하는 단체를 평가하는 상인「자치체 국제교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니가타시청 국제과에서 교류협정도시인 한국의 울산시와의 연락업무, 통역 등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맡 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가타시청 국제과 소속이지만, 주 2 일은 니 가타시 국제교류협회에 근무하며 니가타시의 한국인을 지원하고. 니가타시민에게 한국을 알리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국제교류원과는 다르게, 두 곳에서 일하기에 그만큼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니가타시청 국제과의 업무

니가타시와 울산시는 2016 년에 교류협정체결 10 주년을 맞이하 여, 양쪽 시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어 시장님을 비롯한 대표단과 문화 단이 상호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니가타시의 무대 관계자와 울 산시 전통무용단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도왔습니다. 단 40분의 공 연을 위해서 며칠간 조명의 미묘한 밝기, 음향, 커튼의 높이 등 정 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협의를 거쳐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서 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완벽한 무대를 선보여 니가타 시민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을 것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낼 때 너무나 감동하였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니가타 시 민분들이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니가타시에는 '울산우호회'가, 울산시에는 '니가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시민모임이 있어, 근년에는 교대로 상호방문하고 있 습니다. 아마 니가타가 울산시와의 관계가 특별히 끈끈한 것은, 업 무적인 교류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헤어질 때 서로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때마다, 언어의 장벽이 있어도 소통하고자 한다면 마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니가타시 국제교류협회의 업무

니가타시 국제교류협회에서는 국제과보다는 조금 더 니가타시민 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오샤베리 살롱」이라는 이벤트는, 5명의 니가타시 국제교류원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진행하며, 테마를 정하여 시민들

과 자기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강좌 이벤트로, 강의식 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으 로 이루어집니다 시민부들과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한국의 문화를 전할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몰랐던 일본의 문화도 알 수 있기 때문 에 저 자신도 공부가 되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매년 초여름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시기에 개최하는 아웃도어 페 스티벌 (Outdoor Festival) 은 . 기획부터 홍보 . 개최까지 5명의 니 가타시 국제교류원이 힘을 모아 진행하는 이벤트로, 가장 국제교류 원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업무입니다. 국적 불문 남녀노소 참가하 여 즐겁게 스포츠를 즐기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스포츠 이벤 트로, 스포츠를 하면서도 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국적인 스포츠 종목과 교류 게임을 채택합니다. 저는 한 국의 짝 피구를 담당하여, 한국에는 색다른 피구가 있다는 것을 소 개하였고, 참가자들도 즐겁게 즐겨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운동신경 이 없지만, 저처럼 운동에 자신이 없는 참가자들이나 부끄러움이 많 은 아이들도 편한 분위기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몸소 적극적으로 나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가타시 국제교류원 5 명의 인연

니가타시에는 한국인인 저를 포함해서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 아 이렇게 5명의 국제교류원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원이 되기 전까 지 니가타에 와본 적도 없었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처음으로 갖는 직장에, 유학할 때 1년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 아본 적이 없었기에, 국제교류원 합격통지를 받고 기쁨 반 걱정 반 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가타에 와서 나 말고도 4 명의 외국인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가치관의 차이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외국인이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이해해가며, 서로 일을 돕는 동료로서, 때로는 친한 친구로서 소중한 인연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 나 서로 각자의 길을 가서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인 생에서 가장 빛나는 이 시절을 같이 지낸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 질 것 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국 제교류원으로서 1년 반 동안 일 해오며 느낀 점은, 국가 간의 정치 적 문제나 언어장벽은 개인과 개인이 교류하는 데에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나가는 일을 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저의 노력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조금이라 도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Profile-

경기도 안양시 출신 . 2016 년 4월부터 니가타시 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하여 현재 2 년차,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였음,

韓国語